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③

2. 신문기사에서의 한자의 병기(併記)와 한자 오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간간 신문기사는 한글로 대부분 표기를 하면서 생소(生疎)한 한자어(漢字語)는 한자의 병기(併記)가 되어 있으면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한자병기가 적거나 없어서 아쉽기만 하다.

다음과 같은 단어를 한자의 병기가 없이 한글로만 표기하면 관련 독자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감자(減資)·한적(韓赤)·역린(逆鱗)·지인(知人)·민변(民辯)·기고(奇稿)·소위(小委)·해로(僥老)·전공노(全公勞)·수능(修能)·당정청(黨政靑)·안보리(安保理) 등 한자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신문기사의 중요한 기사의 단어만이라도 한자를 병기(併記)

하면 독자들의 이해를 크게 돕게 된다.

공전이라는 단어를 표기하는 경우에 空前·空轉·公轉·公田·工錢·攻戰·空戰·空電·公戰·公電·公典·功田·公錢 등 여러 한자어를 의미하는 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한자 병기의 필요를 절감(切感)하게 된다.

모 중앙지는 사실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자로 쓰고 한자 오른쪽에는 작은 활자로 독음(讀音)을 한글로 병기(併記)해 놓고 있었고, 모 중앙지는 사실에서 중요한 한자의 단어를 괄호를 두르고 한자를 병기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꼭 다행하다고 하겠다.

모 신문사는 기사의 표기를 그의 한글로 하다가 피하고는 1면 하단 우측란에 오늘의 시사(時事) 한자 2자를 훈(訓)·음(音)·획수(劃數) 및 단어(單語)와 성어(成語)를 각각 해설 연재(連載)하고, 중국의 고대소설을 연재(連載)해서 한문을 해석(解釋)하였고, 이어 소설에 나오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중심으로 흥미진진(興味津津)하게 해설하여 독

자로 하여금 한자와 친숙(親熟)하게 했다. 각종 신문기사 가운데는 오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指摘)하기란 쉽지 않다.

모 신문사 만화 가운데 반점(飯店)의 '점' 자에서 '广' 자에 '丿' 자를 찍어야 하는데 '卜' 썼으니 1획이 첨가해서 오기했다. 한방(韓方)을 한방(漢方)으로, 한의사(韓醫師)를 한의사(漢醫師) 등 오기가 많았다. 점획(點劃)을 점획(點劃), 후학(後學)을 후학(後學), 학문(學問)을 학문(學問)으로 표기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지난 노인의 날 신문기사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에게 청려장(靑黎杖)을 하사(下賜)한다는 내용 가운데 청려장(靑黎杖)을 靑黎杖으로 잘못 표기를 했다.

청려장은 맹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데 黎는 맹아주 '러' 자다. 모 방송사가 신년 무자(戊子)년의 '무(戊)' 자에 '丿' 를 생략해서 필사해서 광고를 한동안 했는데 이는 잘못 표기한 것이다.

독음 가운데 師·士·事' 자의 혼동(混同)해서 오기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師' 자의 쓰임으로는 교사(教師)·의사(醫師)·약사(藥師)·목사(牧師)로, '士' 자의 쓰임으로는 기사(技士)·학사(學士)·의사(義士)·무사(武士)·변호사(辯護士)로, '事' 자의 쓰임으로는 검사(檢事)·판사(判事)·도지사(道知事) 등 확실히 구별 표기해야 한다.

체육(體育)에서 體' 자를 '休' 자로 신문사마다 표기하고 있었는데 '休' 자의 본래 뜻은 '용렬하다·상여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용(濫用)해서 결국 바랍적이지 못하다. 체부(休夫)는 상여권이요, 체한(休漢)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體' 자를 '休' 자로 바꿔 쓸 수 없다.

지난 해 여름 노인대학장 연수 차 모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순회 코스 가운데 검사대(檢事臺)의 표찰이 있었는데 臺' 자를 '吉+一+至' 순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士+一+口+至' 로 필순(筆順)을 오기했기에 안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고쳤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자유기고

3월 하늘에 서린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류종열
인정부포지사장

봄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바람결에 간간히 꽃샘추위가 시샘하는 3월이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제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저절로 숙연해지는 3.1절이다. 2008년 무자, 1919년3월1일을 기해 일어났던 항일 독립운동이 벌써 올해로 89주년을 맞이한다.

"高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독립) 主權(자주권)을 宣言(선언) 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申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이는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기미독립선언서의 서두이다.

89년전 우리들의 선열들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2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연히 일어나 총결기하였으니, 이 과정에서 일본병들의 만행적 발표로 많은 사상자와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진 고문 끝에 육에서 많은 선열들이 장렬히 순국하였다.

3·1독립운동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強占)한지 9년 뒤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 한민족의 일대 독립사위 운동으로 일제의 가혹한 무단정치와 농민들의 경제적 착취 그리고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서거(逝去)가 일본인(日本人)에 의한 독살(毒殺)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됨으로서, 한민족의 감정이 극도로 자극되어 마침내 구국의 항일 독립운동으로 폭발했던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 우리 근대민족주의의 대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상해의 임시정부탄생, 해외 무장독립운동의 촉진,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운동에 강한 영향을 끼친 거국적인 민족 독립운동이다.

우리가 매년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역사적 사실로만 기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래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삼고 자라나는 세대에 가치관으로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늘어난 광복상대의 경제성장은 여제의 일이 되었고 경기침체와 빈부격차의 상승으로 사회적 통합은 급격히 와해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해방뿐 아니라 나아가 여타 민족운동의 한 원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아래부터의 단란한 항일독립운동정신이 오늘날도 계승, 발전되어 어려운 국내정세와 나아가 글로벌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비도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 번데기 껍질이 없었으면 나비가 될 수 없고, 재 아무리 화려한 꽃도 활자도 뿌리가 없으면 피어 날수 없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나비도 나비의 역사속, 그 구부러 꺾기 마다에서 온 몸을 바쳐 지구를 지켜낸 선열들의 희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 나갔으면 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89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당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교훈 삼고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들에게 밀려닥치는 도전을 승기롭게 극복하여 21세기의 변혁된 조국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길만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에세이 67

생동감 있는 교실환경 구성을 위하여



이호연
영북초등학교 교장

필자가 첫 발령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교실환경 구성이었다. 운동장 보다 더 넓어 보이는 교실의 구성구성을 환경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압담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환경의 영향력이 그처럼 대단히 크다는 의미이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껏 꿈꿔라(Dreams have no limits. Go further)" 라고 말한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에 의해 열사의 나라 두바이가 지상 낙원으로 변모된 것을 보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구성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구성은 살아 있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의 눈요기 거리가 되어

서는 안 된다. 교실 환경 또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년 초 교실 환경구성은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이다. 교실이란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교실 환경구성은 학습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획하고 구성·작업함으로써 교실을 교육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미는 과정이다. 교실 환경구성은 문화 활동인 것이다. 또 학습구성의 다양한 능력이 펼쳐지고 조화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태도와 창의력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곳이다.

교실환경 구성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편하고 즐겁게도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실환경을 구성하는 교사의 학습경험 철학이 반영되고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여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편리성
교실환경을 구성하는 첫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데 있

다. 환경 구성을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많이 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2. 효율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3. 민주성
교실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학습구성이 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실 환경 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가끔 미술작품만 전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실 환경은 학생의 학습활동을 동기유발 시켜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2주일 후에 실시할 과학 실험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관찰학습을 시킨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국어와 수업이 있다면 관련된 활동을 미리 안내하여 학습활동을 시키고, 학습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술 작품 게시를 할 때도 바둑판과 같이 게시하지 말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게시한다. 종이화를 게시할 경우 학생 개개인 이 만든 종이화를 모두 게시하여 전체적으로 큰 종이화 되도록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한 작품게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술 작품 게시를 할 때도 바둑판과 같이 게시하지 말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게시한다. 종이화를 게시할 경우 학생 개개인 이 만든 종이화를 모두 게시하여 전체적으로 큰 종이화 되도록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한 작품게시라 할 수 있다.

4. 협동성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 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5. 현실성
객관적인 환경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명을 키우기 힘든 교실이라면 생명을 키우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해마다 선생님들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실 환경 구성에 있어서 이상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환경구성에 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실 환경 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가끔 미술작품만 전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실 환경은 학생의 학습활동을 동기유발 시켜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2주일 후에 실시할 과학 실험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관찰학습을 시킨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국어와 수업이 있다면 관련된 활동을 미리 안내하여 학습활동을 시키고, 학습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술 작품 게시를 할 때도 바둑판과 같이 게시하지 말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게시한다. 종이화를 게시할 경우 학생 개개인 이 만든 종이화를 모두 게시하여 전체적으로 큰 종이화 되도록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한 작품게시라 할 수 있다.

자유기고

삼일절에 붙이는 우리의 바램



안상훈
인정부포지사장
복지과장

3월1일, 이날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민행에 속속여 지내오던 우리 동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민족자존과 대동단결을 외친 지 89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항일운동은 1895년 국모 명성황후께서 남인을 가장한 일본군인들에게 무참히 시해 되신 후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의병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만주국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식산은행 등을 설치하여 금융과 농촌경제, 토지 등을 수탈하여 경제를 폐쇄시키고 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배일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일진회 등 친일 매국노를 회유하여 침략행위를 합리화시켰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 이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공포하여 인사권, 경찰권, 군대 통솔권, 입법권과 사법권을 손아귀에 넣고 무단정치를 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감압아래 신음하는 조국의 장래를 근심 걱정하던 도쿄 유학생들은 미국 윌슨 대통령에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채택되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집트 등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때가 왔다고 하면서 1919. 2. 8. 조선독립선언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도쿄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갑작스런 붕어 등이 겹치면서 독립운동의 가장 좋은 기회가 조성되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태화관에서 조선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파고다공원에서는 학생과 민중들이 함께 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질서정연한 시위 행진을 하였으며 일제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탄압을 하였으며 요원의 불길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민족적 봉기가 1200회 이상이고 참가인원은 1백만명이 넘는다.

우리의 3.1운동은 이같이 우리 민족의 부활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차움의 역사를 오히려 씻을 수 있었고,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또 지도층으로부터 학생, 부녀자, 농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무저항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 나섰던 것이다.

심지어 3.1운동은 사면에 감지한 매국노 이완용과 정치사찰로 악명을 떨친 조선인형사 신철까지도 비밀을 지켜 대한독립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태었다고 한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일으킨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는 도전을 승기롭게 극복하여 21세기의 변혁된 조국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길만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일제의 무단정치가 끝나고 보다 교활한 문화정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 해외 무장독립운동의 촉진,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운동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 배영운동인 제1차(사타그라하)운동, 이집트의 반영지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중동지역의 민족운동은 촉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우리나라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길이 남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

그 날의 합성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3.1절 되기를 기원해 본다.

포천시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영광스러운 연합예배에 포천시 관내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 일시 : 2008년 3월23일(주일)새벽5시30분
- 장소 : 포천감리교회(☎536-4632 노수우 목사 시무)
- 설교 : 강승삼목사(KWMA사무총장)
- 주최 : 포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박춘식목사 ☎017-340-6254)
- 후원 : 포천시기독교장로연합회 · 포천시기독교공무원신우회 · 포천경찰서경목회
포천시기독교원로장로회 · 포천시기독교실업인



Advertisement for the Easter service, featuring a large image of Jesus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hurches and sponsors.